

남자를 살리리라

(출1:8-22)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애굽 왕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성도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합니다. 8-14절,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리해 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노동에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 아이를 못 낳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부모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영적인 일에 관심을 쓸 시간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위한 시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즐겨 쓰는 전략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15-21). 사탄은 첫 번째 전략이 실패하자 애굽 왕은 산파를 시켜서 사내 아이면 모두 죽여버리도록 명하였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의 자녀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파 처럼 자녀들을 영적인 죽음에서 보호하며 살려 내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본격적인 압력과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실패로 끝나자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손을 대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갓난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물고기의 밥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호하고 살려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회복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